사송고리도롱뇽 대책위원회
경남 양산시 증산3길 4-1 | 055-904-7544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사송 고리도롱뇽 대책위원회
(담당: 사공혜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3095-4025 gimyang@kfem.or.kr)

제 목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하는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 가꾸기 행사

날 짜 2022.01.08. (토)

보 도 자 료

1월말 고리도룡뇽 산란을 위한 이동시기를 앞두고 수만마리의 멸종위기종 고리도룡이 폐사한 양산 사송에서 고리도룡뇽 서식처를 가꾸는 시민행사 열려

4계절 물이 용출되는 습지로 양서류의 산란처로서 적지인 곳에 지주인 경암재단, 50여명의 시민, 윤미향 국회의원, 민주당 양산시의원, 정의당양산시위원회가 정성을 보태

1월 8일(토) LH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공사 구역 옆에서는 택지개발로 파괴된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의 오랜 터전을 대체할 서식처 복원과 확대를 위해 경남과 부산의 시민들이 모여 첫 삽을 뜨는 행사가 마련되었다. LH의 아파트 개발사업과 낙동강환경유역청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희생된 멸종위기종을 지키기 위해 1년 넘게 싸워온 사송 고리도롱뇽 대책위로서는 감회가 남다른 자리였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행사에는 지난 국정감사기간 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생태원, LH 등 관계 청과 기관에 날카로운 질의로 대체서식처 마련을 이끌어낸 윤미향 국회의원, 경암재단 진애언 이사장,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 부산환경회의로 연대하고 있는 대천천네트워크, 금정산 보존회와 부산·경남 지역주민 약 50명, 양산시의회 기후위기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우, 박미해, 문신우 의원을 포함하여 정의당 권현우 양산시위원장, 경남 시민환경연구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사송주민이 참석하여 산란을 앞둔 고리도롱뇽의 대체서식처 마련을 위해 힘을 더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대체 서식지를 마련한 곳은 공사가 한창인 사송지구 1공구 옆 계곡의 하류가 다방천으로 합류하기 직전의 습지대로, 습지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2021년 대체서식처 부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당시 고리도롱뇽의